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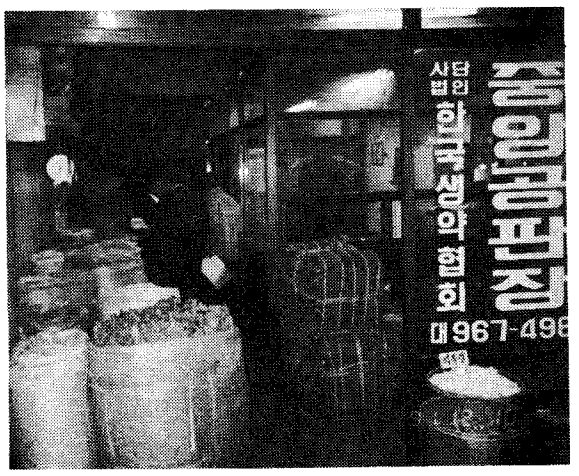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 組織活用과 系統出荷증대

**組織속에 살면서 조직活用을 하지않는다면 無意味하다. 종횡으로 뻗은 산하조직을 活用함과 함께 系統出荷에도 솔선수범하여 內實化 目標를 達成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系統出荷에 다같이 참여로

### 會員 共生共存의 實力蓄積에 이바지 하자!



◇생약공동판매장

本會 會員과 生産農家들의 生藥材 共同出荷및 去來場으로서 開設한 中央共販場은 어언 18年의 經營을(74年 開場) 경험해 왔다. 其間 많은 經營方法을 交換하면서 運營해 보았지만 實利를 얻는데는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數많은 경영者는 이할집산하면서 현실유지에만 급급해 오다가 89年 初期부터 서서히 不實을 脫皮해 가면서 명실상부한 봉사 자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제는 공동판매장으로서의 안정된 기반 造成이 그런데로 갖추어졌고 새로운 人員補強과 함께 활발한 組織活用이 下向式으로 展開되고 있기 때문에 산하조직망에서 50%이상만 이란도 相應한 참여조치를 취해 준다면 內實化目標 達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生覺 된다. 昨年 11月부터 本格的인 흑자경영을 始作하여 날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웬만한 系統出荷만 뒷받침 된다면 그야말로 봉사적인 공동판매장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게 될 것으로 期待된다. 10數年前을(80年代전후) 회고하면 當時 40여개 所의 산하조직을 活用하면서 간신히 共販場을 유지해온 것을 生覺하면 금석지감이 있다. 只今은 本會산하에 市·道支部 12個所, 郡區分事務所 173個所, 大小共販場 67個所등 무려 52個所의 조직망을 確保하고 있는 時點에서 系統出荷에 참여하게 될때 協會의 앞날은 창창大路이고 目標하는 바, 施設, 田圃, 販場은 어언 18年의 經營을(74年 開場) 경험해 왔다. 其間 많은 經營方法을 交換하면서 運營해 보았지만 實利를 얻는데는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數많은 경영者는 이할집산하면서 현실유지에만 급급해 오다가 89年 初期부터 서서히 不實을 脫皮해 가면서 명실상부한 봉사 자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제는 공동판매장으로서의 안정된 기반 造成이 그런데로 갖추어졌고 새로운 人員補強과 함께 활발한 組織活用이 下向式으로 展開되고 있기 때문에 산하조직망에서 50%이상만 이란도 相應한 참여조치를 취해 준다면 內實化目標 達成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生覺 된다. 昨年 11月부터 本格的인 흑자경영을 始作하여 날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웬만한 系統出荷만 뒷받침 된다면 그야말로 봉사적인 공동판매장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게 될 것으로 期待된다. 10數年前을(80年代전후) 회고하면 當時 40여개 所의 산하조직을 活用하면서 간신히 共販場을 유지해온 것을 生覺하면 금석지감이 있다. 只今은 本會산하에 市·道支部 12個所, 郡區分事務所 173個所, 大小共販場 67個所등 무려 52個所의 조직망을 確保하고 있는 時點에서 系統出荷에 참여하게 될때 協會의 앞날은 창창大路이고 目標하는 바, 施設, 田圃, 研究所 등을 마련할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展望해 본다. 그래서 中央共販場의 施設도 現在보다 3倍 이상의 확충, 万余坪의 시범포유지, 표준적인 敎育 및 研究시설, 多用途회관 확보등 의욕적인 長期目標를 設計해 보는 것도 결코 希望事項만은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背景은 젊고 패기 넘치는 會長國과 任員國 그리고 새로 영입된 많은 所長들이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정신의 所有者들이기 때문에 充分히 可能할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昨年 8月부터 發足한 行政및 生産지도委員會의 活動에도 各級分所長들이 많은 參여와 協助를 해준 결과 현재 其成果가 좋은 方向으로 점차 集計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中央共販場의 內實化 현장을 파악하게될 단계가 되면 많은 所長들이 系統出荷에 참여하게 될것으로 보며, 目標하는바 實績도 增大되어 共販場自體계획 物動量도 達成하므로서 黑字경영勢를 계속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한다.

(편집부 제공)

## 신년사

### 2면으로 계속

全國의 農漁民 여러분! 그리고 農林水産 公職者 여러분과 有關機關團體 任職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辛未年을 보내고 希望찬 壬申年의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먼저 農漁村과 農林水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精誠과 努力을 다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今年에도 幸福과 健康이 함께하시기를 마음으로부터 祈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急變하는 對內外的 與件속에서도 先進 民主國家 建設이라는 우리의 時代的 課題를 達成하기위해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였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地方議會 선거실시로부터 개막된 地方自治의 실천으로 成熟된 民主化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를 이루어냄으로써 南北間 平和共存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의 소망인 南北統一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등 民族史에 있어 새로운 地平을 열어나가는 한편, UN가입의 실현으로 國際社會에서 우리의 位相을 크게 높인바 있습니다.

우리 農政에 있어서도 民主 農政의 傳統을 確立해 나가면서 農林水産業과 農漁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豐年農事를 이룩하는데 모든 精誠과 努力을 다쏟은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등 開放化의 거센 물결에 對應하기위하여 우리 農水産業의 競爭力强化와 農漁村活力을 增大시키기 위한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落後된 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農水産物流通構造 改善對策」, 수입농산물과의 競爭에 대비한 「品目別 競爭力 向上對策」, 농수산물의 附加價値를 높이기위한 「農水産物加工産業 育成對策」등을 마련함으로써 21世紀를 향해 우리 농림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農政의 長期方向을 定立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이와같이 지난 한해동안 들녘과 바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풍요로운 農漁村을 건설하고자 애써주신 7百萬 農漁民 여러분과 農林水産 公職者, 有關團體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眞心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農漁民 여러분! 그리고 農林水産 公職者 여러분!

이제 우리앞에 다가선 92年은 希望과 期待, 그리고 挑戰의 試鍊이 交叉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對外的으로 理念의 낡은 벽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더욱 深化될 世界經濟 블럭화현상으로 國際交易秩序가 再編되는등 國際情勢가 숨가쁘게 展開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또한 國內的으로도 네차례의 선거실시와 이에따른 物價不安, 國際收支赤字 豫想등으로 정치와 경제등 여러면에서 우리가 처한 與件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實情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農漁村部門 역시 輸入開放등 開放化의 波高가 더한층 거세어지는 속에서 우리 農水産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漁民의 소득과 農漁村의 生活環境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등 當面한 課題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農林水産人 모두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여건을 직시하면서 「農林水産業의 競爭力 向上과 「農漁村活力增大」라는 當面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智慧와 努力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共同目標를 達成하기위하여 政府는 第7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과 農漁村 構造革新의 年代를 여는 첫해인 올해에는 다음과 같은 事業에 역점을 두고 推進코자 합니다.

첫째로 農水産業 構造改善의 本格 推進입니다.

그동안 進行되어온 UR 農産物協商은 昨年 12月20

## 계약재배 품목 삼도시호 수매

협회는 91年度分 계약재배 사업으로 實施한 삼도시호 수확품에 대하여 지난 12月初旬부터 92년 2월까지 수매 일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재배 섬과를 측정할 단계는 아니며 2월말 경이면 섬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매과정에는 본부 조사장과 이영화계장이 현지를 순방하면서 현재 진행중에 있음으로 계약재배자및 지역책임자는 참고하시고 사업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祝)

發展

◇강원도지부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지부장 최윤철
도공판장 황인구 (이사겸직)
철원군 사무소장 박영임 (감사겸직)
원주군 〃 전승표
영월군 〃 심호섭
춘천시 〃 허수
평창군 〃 함영완 (이사겸직)
인제군 〃 이종열
명주군 〃 최이규
태백시 〃 우대기 (공판장겸직)
홍천군 〃 박건훈
삼척시 〃 김시부
양구군 〃 강연백
삼척군 〃 김원복
양양군 〃 김항래 (공판장겸직)
횡성군 〃 조대현
속초시 〃 임원길
동해시 〃 김정태
정선군 〃 전제욱
삼척군 공판장 최준수